

# 커지는 '개혁입법연대론'

정보 세력 연합시 157석  
평화당·정의당 與에 러브콜  
민주 "필요"·"신중" 분분  
주승용 "바른미래도 동참해야"



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한주라도 국회 문을 열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혁입법연대론이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여소야대 지형은 해소되지 않았다. 개혁입법 과제를 여당 홀로 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13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3석), 민중당(1석) 등 '진보 성향'으로 묶이는 세력과 함께하면 전체 의석의 과반인 157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화당과 정의당을 아우르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이 가능하고 개혁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 '평화와 개혁 연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내 관계자는 1일 "개혁입법을 위한 뜻이 같은 정당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홍 원내대표가 밝힌 바 있는 '협치 제도화 추진'도 입법연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고섭단체를 이룬 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연일 입법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각 교섭단체가 따로 하는 체제로

는 개혁입법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홍 원내대표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 29일 개인 성명을 내고 "바른미래당도 개혁입법연대에 적극 동참해 157석을 뛰어넘어 184석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도 국회가 장기간 공전 끝에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 마당에 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론은 '입법 독재'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 입각에서는 이러한 보수 야당의 기류를 무시하고 개혁입법연대 추진을 강행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정치에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며 "연대를 무리해서 추진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반작용이 크게 일면서 오히려 국회 협치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연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

는 지적도 존재한다. 입법연대 움직임이 행여 원구성 협상을 대비한 정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정치권에선 평화당이 연대 수준을 넘은 연정을 언급하고, 정의당 역시 적극적인 것은 각각 장관직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노린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

또 일단 연대 논의가 출발 테이블을 끊더라도 실제 현실화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당 간 연대를 위해서는 각자 챙겨야 할 실익이 분명해야 하지만 각 정당의 생각이 달라 공통분모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 민주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2.4대 1

18곳 43명 응모...전국은 253곳 1.8대 1 경쟁

###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위원장 응모 현황

□ 광주광역시	
동남갑	양승규(64) 최영호(54) 임형진(60) 신다감(48·여) 정재수(59)
동남을	이병훈(62) 김신기(60)
서구갑	송갑석(52)
서구를	김하중(59) 양항지(52·여)
북구갑	강기정(54) 정준호(39)
북구를	이형석(57)
광산갑	이용빈(54) 윤봉근(61)
광산을	민형배(58) 윤난실(53·여) 김성진(56) 박시종(55)
□ 전남도	
목포	우기종(63)
여수갑	주철현(60) 김정유(56) 한정우(51) 김유환(54·여)
여수를	정기명(56) 김순빈(66) 권세도(60)
순천	김영득(59) 김광진(38) 서갑원(57)
나주·화순	신성훈(54)
광양·곡성·구례	김재홍(68) 안준노(59) 서종식(60) 서동용(54) 김종대(68)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60)
고흥·보성·장흥·강진	박병중(65) 김성(59) 신문식(64) 김승남(52)
해남·완도·진도	윤재갑(64)
영암·무안·신안	서삼석(59)

2020년 4월 치러질 제 21대 총선의 전 초선 격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18개 지역위원장 공모에 모두 43명이 응모,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 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지역위원장 후보자 온라인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자리에 459명이 접수,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는 8곳에서 19명, 전남은 10곳에 24명이 접수했다.

광주 동남갑은 5대 1, 광산을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광주지역 유일한

현역의원 지역구인 서구갑과 시당위원장 지역구인 북구를 등 2곳은 단수지 원했다. 나머지 동남을·서구를·북구갑·광산갑은 각각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에서는 광양·곡성·구례가 5대 1, 여수갑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각각 4대 1, 여수를과 순천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역의원 지역구인 담양·함평·영광·장성과 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해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등 모두 5곳은 단수 지원했다.

지역위원장들의 임기는 2년 후 2020년 총선까지다. /박정욱 기자 jwpark@

## 송영길 "文정부 성공 광주가 도와달라"

DJ센터서 포럼 결의대회·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의 8·25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에 도전한 호남출신 송영길 의원(인천계양구을)이 1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럼 '광주의 길' 결의대회 및 '평화를 노래하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시작된 '민주화의 길'이 이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시민들께서 광주에서 북방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어 "신북방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마련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 '광주의 길' (준비위원장 강행욱 변호사)은 정부 성공을 위해 광주인들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이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의 번영에 힘을 모으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갑석(광주 서구갑)·박정(경기 파주시을)·박찬대(인천 연수구갑)·신동근(인천 서구를)·유동수(인천 계양구갑) 등 국회의원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친문 교통정리 '주춤' ... 민주 당권구도 '흐릿'

김진표·최재성·전해철 단일화 공감대...송영길·박범계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뚜렷한 대결구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에서 누가 '대표 선수'로 나설지에 대해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문계 최재성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지난달 말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아직 구체적 진전은 없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1일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많아서 늦어지는

것"이라면서 "전해철 의원과 내가 같이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친문 후보 단일화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의 김진표 의원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김진표 의원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재성·전해철 의원과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고 소개한 가운데 세 사람은 최근까지 각각 만나 출마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친문

후보 단일화와 관련, "7월10일 정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이 논의 구도에는 윤호중 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정작 친문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논의는 평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후보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협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해찬 의원의 출마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도 관련 논의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결심할 경우 친문 후보 단일화 판이 새롭게 짜일 수 있다.

친문 단일화 움직임에 대한 당내 비판도 당권 구도 정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자 호남 후보로 꼽히는 4선 송영길 의원은 친문 후보 단일화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친문을 내세워 단일화하면 상대를 만들고 편을 나누는 것"이라며 "이는 문 대통령이 비판한 분열의 정치"라고 말했다.

전대 원주 의사를 밝힌 재선의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친문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반(反) 혁신으로 당원 결정을 침해'라고 비판했다. 범친문으로 불리는 4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정대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수여서 안개 속 전대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